

호랑이문화포럼

추진계획안

— K-Tiger Culture 플랫폼과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제안서 —



호랑이문화포럼

TIGER CULTURE FORUM
문화의 연결 | 생태의 공존 | 미래의 협력

2026. 8

호랑이문화포럼 운영위원회

호랑이문화포럼 추진계획안

요약

한눈에 보는 호랑이문화포럼 추진계획

- K-Tiger Culture 플랫폼과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제안 -

1. 제안 배경

K-Pop, K-Drama, 영화, 문학, 웹툰,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와 콘텐츠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한국 문화의 창조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개별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그 바탕에 축적된 이야기와 이미지,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감수성을 지속적인 문화경험과 공공문화 자산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한글과 태극, 산과 달, 한옥과 단청, 탈과 도깨비 등 다양한 문화상징이 있다. **호랑이**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한국 문화 전체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상징이 아니다. 그러나 설화·민속·신앙·역사·문학·회화·생활문화·대중문화와 실제 자연이 하나의 상징 안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특별한 가능성을 지닌다.

한국의 호랑이는 산의 주인과 산신의 전령, 두려운 맹수와 인간적인 이웃, 권위의 상징과 풍자의 대상, 민족적 이미지와 친근한 캐릭터 등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복합성과 풍부한 서사, 강한 시각적 인지도와 캐릭터성은 호랑이가 시대와 세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열린 문화자산**임을 보여준다.

또한 호랑이는 상상 속 문화상징인 동시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명체**다. 따라서 호랑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문화적 기억과 생태적 현실, 한국의 지역문화와 동아시아·러시아 극동의 국제협력을 함께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 관련 문화·역사·생태 자산은 여러 분야와 기관에 흩어져 있으며, 이를 조사·기록하고 연구·창작·전시·교육·콘텐츠·시민 참여·국제교류로 연결하는 통합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이 현대 콘텐츠의 소재로만 일방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그 자체의 가치로 연구·창작·교육·전승되는 가운데 새로운 콘텐츠의 원천이 되며,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관심과 성과가 다시 문화와 생태의 기반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2. 호랑이문화포럼과 K-Tiger Culture 플랫폼

호랑이문화포럼은 특정 기관이나 분야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다. 연구자·예

술가·창작자·교육자·생태 전문가·문화기관·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와 시민이 만나 공동의제를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함께 기획하며, 그 성과를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비영리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문화 협력 플랫폼이다.

포럼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공론과 지식 형성:** 호랑이의 문화·역사·생태적 의미를 연구하고 다양한 관점이 만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 **연결과 공동기획:** 대학·박물관·창작자·교육기관·기업·지방자치단체·재단·생태기관 등을 연결하여 공동사업을 기획한다.
- **실험과 실행:** 아카이브·전시·교육·창작·콘텐츠·지역협력·생태보전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축적과 환류:** 연구와 사업의 성과를 기록·공유하고, 형성된 지식·자료·관심·자원이 다시 연구·창작·교육·전승과 생태보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호랑이문화포럼과 K-Tiger Culture 플랫폼은 구분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고 공동의 비전과 사업을 만들어 가는 협력 네트워크이자 운영 주체이다.

K-Tiger Culture 플랫폼은 포럼의 활동과 성과가 축적되어 형성될 연구·아카이브·창작·전시·교육·콘텐츠·지역협력·시민 참여·국제교류의 장기적 통합 기반이다.

포럼은 처음부터 대규모 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연구와 시범사업, 시민 참여와 기관 협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장기 비전

“문화의 뿌리에서 미래의 이야기가 자라나는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결을 만들어 간다.

- **기억을 모으다**
흩어진 문화·역사·예술·생태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한다.
- **오늘의 언어로 잇다**
연구자·전통예술가·작가·현대 창작자가 문화적 원천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작한다.
- **시민과 세계가 경험하다**
전시·교육·공연·콘텐츠·관광·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감성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문화와 자연에 돌려주다**
창작과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관심과 성과를 연구·교육·전승·기초예술과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환류한다.

3. 5대 핵심 분야

호랑이문화포럼은 다음 다섯 분야를 독립된 사업영역이 아니라 서로의 지식과 성과를 주고받는 상호연결된 축으로 운영한다.

핵심 분야	주요 방향
문화원천·인문예술	설화·민속·신앙·문학·미술·역사·생활문화 원천자료의 조사·연구·해설·아카이브
생태·보전·환경	실제 호랑이·표범과 서식지, 생물다양성,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및 국제 보전협력
콘텐츠·창작·산업	문화적 원천의 현대적 재해석, 공동창작, 공정한 권리·보상과 문화산업 동반성장
전시·교육·시민참여	생태·전통문화·정체성·세대·다문화를 연결하는 통합교육과 시민 창작·체험
국제교류·공공외교	한국·동아시아·러시아 극동의 문화·학술·생태 협력과 비정치적·호혜적 공공외교

주요 사업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기획한다.

문화적 원천의 조사·연구·기록

- 해석과 창작
- 전시·교육·콘텐츠·시민 경험
- 국내외 공유와 참여 확대
- 연구·창작·전승·생태보전 기반으로 환류

4. 참여 구조와 상호가치

포럼에는 대학·연구기관, 박물관·문화기관, 예술가·작가·창작자, 기업·문화콘텐츠산업, 환경·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단·공익후원기관, 전승 공동체·지역사회·시민이 각자의 전문성과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협력은 한쪽이 재원이나 자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참여자의 기여가 공동의 성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다시 참여자의 활동과 공동의 문화·생태 기반을 강화하는 **상호가치의 순환구조**를 지향한다.

- 대학과 연구기관은 새로운 융합연구, 공동자료, 학생 현장교육과 사회적 확산의 기회를 얻는다.
- 박물관과 문화기관은 소장자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디지털 보존·공동전시·신규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다.
- 예술가와 창작자는 검증된 원천자료와 협업·발표·유통·산업적 활용 기회를 얻고, 저작권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는 협력모델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은 신뢰도 높은 문화원천과 차별화된 IP, 안정적인 권리 관계, ESG-CSR 및 장기 협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교육기관과 지자체는 통합교육, 지역문화·관광·장소브랜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재단과 후원기관은 문화·교육·환경을 연결하는 대표 공익사업과 장기적으로 남는 자료·인재·교육모델·협력망을 형성할 수 있다.

협력은 자문과 자료 공유 등 낮은 진입 단계에서 시작하여 공동 프로그램,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 주체가 동일한 수준이나 방식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5. 초기 실행 프로그램

초기 사업의 목적은 행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K-Tiger 문화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작은 규모로 검증하고 축적하는 데 있다. 실제 추진사업과 순서는 참여기관·재원·인력에 따라 결정한다.

우선 검토할 대표 시범사업

1. **포럼·협력 네트워크와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참여기관·전문가·자료·공간·사업과 협력 수요를 조사하여 네트워크 지도와 후속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2. **대학·박물관 K-Tiger 원천자료 아카이브**
대학이 조사·분류·메타데이터 체계를 설계하고 박물관이 소장자료·보존·권리정보를 체계화하여 검증된 시범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안내서를 구축한다.
3. **전통문화·기초예술-현대 콘텐츠 공정협업랩**
연구자·전통예술가·현대 창작자·콘텐츠 분야가 원천자료를 공동으로 재해석하고, 창작자의 기여·저작권·2차 활용·보상 기준을 반영한 시범 협업모델을 만든다.
4. **호랑이문화 통합교육·시민참여 시범사업**
생태와 생명, 전통과 문화, 정체성과 세대, 다양성과 공존을 연결하는 어린이·가족·시민 대상 교육모듈과 다언어 자료를 개발한다.
5. **지역 K-Tiger 문화지도·탐방 시범사업**
한 지역의 산·지명·설화·사찰·미술·문학·생태 자산을 조사하여 주민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문화지도·탐방코스·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호랑이문화-생태보전 연계 시범사업**
생태 연구성과를 전시·영상·교육자료로 전환하고, 문화행사와 시민 프로그램을 실제 호랑이·표범과 서식지 보전 참여로 연결한다.

모든 시범사업은 자료 출처와 참여자의 기여를 밝히고, 저작권·이용 범위·보상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며, 결과뿐 아니라 협업 과정과 성과·한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신진·아마추어 창작자가 작품을 등록하고 시민·교육기관·출판사·기업 등이 원작을 구매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K-Tiger 창작 아카이브·라이선싱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초기에는 소규모 큐레이션과 수동 이용허락으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전자계약·결제·정산·분쟁관리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6. 기대효과와 발전 방향

포럼의 기대효과는 호랑이 관련 행사나 콘텐츠의 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지 않다.

- 원천자료와 연구성과가 공공 지식자산으로 축적된다.
- 전통문화·기초예술과 현대 창작·문화산업이 함께 성장한다.
- 창작자의 권리·보상과 산업적 활용을 조화시키는 공정협업 기준이 형성된다.
- 생태·전통문화·정체성·다문화를 연결하는 통합교육이 확산된다.
-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장소 기반 브랜드와 시민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 문화적 관심이 실제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전 행동으로 이어진다.
- 국내외 문화·학술·생태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 기관 간 공동기획·권리관리·성과평가·환류 경험이 다른 문화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로 축적된다.

향후 발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계	주요 방향
1단계: 기반 형성 2026~2027	포럼 출범, 공동의제·운영원칙 마련, 협력지도 작성, 우선 파일럿 선정
2단계: 실행과 검증 2027~2028	아카이브·공정협업·통합교육·지역·생태보전 파일럿 실행과 평가
3단계: 정례화·확장 2028~2030	우수사업의 다년간 프로그램화, 지역·국제 네트워크, 기관 간 아카이브 연계
4단계: 플랫폼·거점화 장기	통합 디지털 플랫폼, 분산형 협력거점, 상설 교육·전시·연구 프로그램 구축과 문화센터 타당성 검토

시설보다 관계와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다.

장기적으로 K-Tiger Culture 플랫폼은 문화와 자연, 전통적 기반과 현대적 창조, 지역과 세계, 창작자와 문화산업을 연결하며,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시민과 세계가 보다 깊고 감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문화의 기반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7. 협력 제안

호랑이문화포럼은 처음부터 장기적이거나 포괄적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 기관과 개인은 자신의 목적·전문성·여건에 따라 다음 방식 가운데 적합한 형태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 포럼·세미나·원탁회의 참여와 전문가 자문
- 자료·정보·작품·공간·기술·네트워크 공유
- 공동연구·아카이브·전시·교육·창작·지역·생태 프로그램 기획
-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재원·후원·홍보 협력
- 국내외 기관 및 지역과의 네트워크 연계
- 검증된 프로그램의 다년간·전략적 공동추진

호랑이문화포럼이 지향하는 협력은 누군가의 기여를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다. 참여자의 성장이 공동의 문화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의 성장이 다시 참여자에게 새로운 연구·창작·교육·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기회로 돌아오는 상호가치의 순환구조이다.

<제목 차례>

1. 왜 지금 K-Tiger인가	1
2. 호랑이문화포럼은 무엇인가	4
3. 포럼의 5대 핵심 분야와 연계 구조	6
4. 왜 한국이며, 왜 호랑이인가	10
5. K-Tiger Culture 플랫폼 비전	13
6. 참여 구조와 상호가치 협력 방식	14
7. 초기 실행 프로그램 (Pilot)	29
8. 기대 효과	38
9. 향후 발전 방향	42

1. 왜 지금 K-Tiger인가

**“외국인들이 ‘코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될까”**

**“대한민국의 문화적 뿌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을
만든다면, 무엇이 적합할까”**

오늘날 K-Pop과 K-Drama, 영화, 문학, 웹툰,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와 콘텐츠는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 문화가 지닌 창조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개별 콘텐츠의 성공을 넘어, 그 안에 축적된 이야기와 이미지, 문화적 감수성을 지속적인 문화경험과 공공문화 자산으로 연결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동물·건축·예술·신화·생활문화 등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은 단순한 국가 홍보 수단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관문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뛰어난 개별 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자산이 존재함에도, 이를 하나의 이미지와 서사로 연결하여 한국을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합적 문화 플랫폼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문화에는 한글과 태극, 산과 달, 한옥과 단청, 탈과 도깨비 등 다양한 상징이 존재한다. 호랑이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한국 문화 전체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표상이 아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설화·민속·신화·회화·문학·생활문화·대중문화와 실제 자연이 하나의 상징 안에서 만나는 드문 **문화적 접점**이다. 풍부한 서사, 강한 시각적 인지도, 현대 콘텐츠로의 확장성,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생태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는 점에서, 호랑이는 **한국 문화의 여러 층위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출발점**으로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호랑이를 민족적·문화적 상징으로 공유해 왔다. 민화와 설화, 산신신앙과 민속, 문학과 예술, 생활문화와 놀이에서 스포츠와 현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감성을 연결하는 핵심 이미지로 존재해 왔다. 두려움과 친근함, 권위와 해학, 강인함과 따뜻함을 함께 지닌 복합적 성격은 호랑이가 시대와 계층,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호랑이는 상상 속의 문화상징인 동시에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명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호랑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문화적 기억과 생태적 현실, 전통적 상상력과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많은 문화상징과 구별되는 호랑이의 중요한 특징이다.

최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비롯하여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랑이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글로벌 흥행작 K-Pop Demon Hunters에 등장한 호랑이 캐릭터 역시 호랑이가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감수성과 콘텐츠 환경 속에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호랑이가 국내외 대중에게 여전히 강한 시각적·정서적 호소력을 지닌 문화상징임을 확인하게 한다.

지금은 K-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국을 직관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드문 기회의 시기다. 호랑이는 K-Pop·K-Drama·기술력 등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이미지에 **구체적인 형상과 이야기**를 더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생태·정체성을 함께 보여주는 지속적인 문화상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축적된 호랑이 관련 자산은 생태·역사·설화·민속·전통예술·민화·문학·디자인·캐릭터·스포츠·콘텐츠 등 여러 분야와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아카이브·연구·전시·교육·창작·콘텐츠·관광·국제교류로 연결하는 **통합적 플랫폼**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풍부한 문화자산이 개별 연구나 일회성 행사, 단편적인 콘텐츠 활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을 이루는 **문화적 기반**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콘텐츠는 오랜 시간 축적된 언어와 이야기, 역사적 기억과 미감,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창조적 토대 위에서 성장해 왔다. 문화의 산업적 활용만 강조되고 그 뿌리가 되는 연구·창작·교육·전승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야기와 이미지,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을 현대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관계가 아니다.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이 그 자체의 가치로 연구되고 창작되며 전승되는 가운데 현대 콘텐츠의 창조적 원천이 되고,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심과 성과가 다시 연구·창작·교육·전승의 기반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다음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 K-콘텐츠의 세계화와 새로운 문화적 원천에 대한 수요 확대
- 경험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도시브랜딩의 확산
- 전통문화·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기반과 문화산업 성과의 환류구조 필요
- 생물다양성·기후위기 대응과 문화·생태교육의 중요성 확대
- 미래 세대와 다문화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상징의 필요
-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문화·생태 중심 국제교류의 중요성 확대

호랑이문화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호랑이라는 구체적인 친숙한 상징을 출발점으로 문화·생태·콘텐츠·교육·시민 참여·국제교류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제안한다. 흩어진 호랑이 관련 자산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화적 상상력을 낳아 온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와 아카이브가 창작과 교육의 원천이 되고, 창작과 콘텐츠가 시민과 세계의 참여를 넓히며, 그 성과와 관심이 다시 문화와 생태의 기반으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호랑이를 단순한 국가브랜드 이미지나 콘텐츠 소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뿌리와 현대적 창조, 인간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문화적 언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K-Tiger Culture 플랫폼은 이러한 연결과 선순환을 통해 한국을 보다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공공문화 자산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의 장이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과 현대,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자로 등장한 '더피' 호랑이

출처 [달려라김밥왕](#)

2. 호랑이문화포럼은 무엇인가

개방형 공공문화 협력 플랫폼

호랑이문화포럼은 특정 기관이나 분야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기관이 공동의 비전과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비영리적이고 개방적인 공공문화 협력 플랫폼**이다.

포럼은 호랑이를 문화·생태·학술·예술·교육·콘텐츠·시민사회와 국제교류를 연결하는 공통의 문화적 언어로 삼는다. 서로 다른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지식과 자료, 창작 역량과 공간, 기술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개별 기관이나 사업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새로운 공공문화 가치를 형성하고자 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하나의 학술단체나 문화행사 운영조직에 머무르지 않는다. 연구자·예술가·창작자·교육자·생태 전문가·문화기관·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와 시민이 만나 공동의 의제를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기획하며, 그 성과를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지향한다.

포럼의 핵심 기능

포럼은 다음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공론과 지식 형성**
호랑이와 관련된 문화·역사·생태적 의미를 연구하고, 여러 분야의 관점과 경험이 만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 **연결과 공동기획**
대학·연구기관·박물관·문화기관·예술가·콘텐츠 분야·환경 및 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하여 공동연구와 전시·교육·창작·국제교류 사업을 기획한다.
- **실험과 실행**
학술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아카이브·전시·교육·시민 참여·콘텐츠 협업 등 작지만 실행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협력 경험을 축적한다.
- **축적과 환류**
연구와 사업의 성과를 기록·보존하고 공공적으로 공유하며, 콘텐츠와 시민 참여를 통해 형성된 관심과 자원이 다시 연구·창작·교육·전승 및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포럼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는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이 현대 콘텐츠의 소재로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들 문화적 기반이 그 자체의 가치로 연구·창작·교육·전승되는 가운데 현대 콘텐츠의 창조적 원천이 되고,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심과 성과가 다시 문화의 기반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생태계는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호랑이와 실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호랑이를 분리하지 않는다. 포럼은 문화적 상상력이 야생 생명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문화와 자연의 연결을 중요한 실천 원칙으로 삼는다.

호랑이문화포럼과 K-Tiger Culture 플랫폼

호랑이문화포럼과 K-Tiger Culture 플랫폼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고 공동의 비전과 사업을 만들어 가는 협력 네트워크이자 운영 주체이다.

K-Tiger Culture 플랫폼은 포럼의 활동과 성과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될 연구·아카이브·창작·전시·교육·콘텐츠·시민 참여·국제교류의 통합적 기반이다.

따라서 포럼은 K-Tiger Culture 플랫폼을 단번에 완성된 조직이나 공간으로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와 시범사업, 시민 참여와 기관 협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자 추진 기반이다.

참여와 운영

포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박물관과 문화기관, 예술가와 창작자, 환경·교육기관, 기업과 재단,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지역사회와 시민이 각자의 전문성과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단일한 회원 자격이나 획일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동연구·자문·전시·교육·창작·후원·협찬·공간 제공·자료 공유·국제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포럼은 각 참여 주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주요 방향과 성과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협력 구조를 지향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호랑이라는 문화적 언어를 매개로 사람과 지식, 문화와 생태, 전통적 기반과 현대적 창조를 연결하고, 그 성과가 다시 공동의 문화적 토대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개방형 공공문화 플랫폼이다.

3. 포럼의 5대 핵심 분야와 연계 구조

호랑이문화포럼은 호랑이를 매개로 서로 다른 학문·문화·예술·생태·사회 영역을 연결하는 **융합형 플랫폼**을 지향한다. 포럼이 다루는 다음의 다섯 분야는 독립된 부서나 서로 분리된 사업영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상호연결된 축**이다.

포럼은 문화적 원천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를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고 창작하며, 전시·교육·콘텐츠와 시민 참여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심과 성과가 다시 문화의 연구·창작·전승과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5대 분야를 관통하는 문화생태계 원칙

문화적 원천의 조사·연구·기록

- 해석과 창작
- 전시·교육·콘텐츠와 시민 경험으로 확장
- 국내외 공유와 참여 확대
- 연구·창작·전승·생태보전 기반으로 환류

1) 문화원천·인문예술 분야

이 분야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민속·신앙·역사·문학·회화·공연·생활문화와 그 배경이 되는 전통문화 및 인문예술의 토대를 조사하고 기록한다. 이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사회와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공공문화 자산으로 축적하고자 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호랑이 설화·민속·신앙·민화·문학·역사 자료 조사와 비교연구
- 북한·연변 등 해외 한인사회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호랑이문화의 전승과 변용 연구
- 문헌·구술·시각·청각 자료의 수집, 해설, 디지털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 호랑이와 야생동물을 다룬 문학·예술·역사 서사의 재조명
- 학술 세미나·출판·도록·원천자료 안내서 등 연구성과의 공공적 공유
- 전승 공동체·연구자·예술가·소장기관의 기여와 지식재산권 존중

2) 생태·보전·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한국호랑이와 한국표범을 비롯한 최상위 포식자의 생태적 의미와 보전 문제를 생물다양성·기후위기·동북아 환경협력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호랑이

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명체를 분리하지 않고, 문화적 관심이 야생 생명과 서식지에 대한 이해와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호랑이·표범과 서식지에 관한 생태·보전 연구 및 국제협력 성과의 공유
-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갖는 역할과 가치 조명
- 문화적 상징과 야생동물 보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환경 커뮤니케이션 개발
- 생물다양성·기후위기·생태감수성 교육에 호랑이의 문화적 친숙성 활용
- 동북아 초국경 생태계와 인간·야생동물 공존에 관한 학술·시민 담론 형성
- 문화·교육 활동을 실제 호랑이와 서식지 보전에 대한 참여와 협력으로 연결

3) 콘텐츠·창작·산업 분야

이 분야에서는 전통문화와 인문예술 속에 축적된 호랑이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현대의 문학·디자인·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적 활용 자체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연구자·전통예술가·현대 창작자와 콘텐츠 분야가 원천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함께 창작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현대 K-콘텐츠와 대중문화에 나타난 호랑이 캐릭터와 상징 구조 연구
- 설화·민화·문학·신앙 등 원천 문화자료의 현대적 스토리텔링과 시각언어 개발
- 연구자·전통예술가·작가·디자이너·영상 및 디지털 창작자의 공동기획 모델 구축
- 차세대 스토리 IP·캐릭터·디자인·공연·영상·디지털 콘텐츠의 실험
- K-Tiger를 활용한 국가·지역 브랜딩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연구
- 출처와 역사적 맥락, 창작자와 전승 공동체의 기여를 존중하는 활용 원칙 마련
- 콘텐츠의 성과와 사회적 관심을 연구·아카이브·교육·전승 기반으로 환류하는 모델 개발

4) 전시·교육·시민 참여 분야

이 분야에서는 전시·공연·낭독·스토리텔링·체험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호랑이의 문화적·생태적 가치를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가족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고, 일회성 관람을 넘어 새로운 해석과 창작의 주체가 되는 공공문화 모델을 지향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전통 호랑이문화와 현대 시각예술·디자인을 연결하는 전시와 공연
- 문학·설화·민속·생태지식을 활용한 낭독·스토리텔링·놀이·체험 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가족 대상 문화·생태·생물다양성 교육
- 지역사회 및 다문화 공동체가 각자의 호랑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참여 프로그램
- 전통예술가·작가·연구자·현대 창작자가 함께하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
- 전시와 행사의 성과를 기록·아카이브·교육자료로 축적하고 후속 연구와 지역 프로

5) 국제교류·공공외교 분야

이 분야에서는 호랑이를 한국과 동아시아, 러시아 극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로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각 지역의 고유한 기억과 지식을 존중하는 호혜적인 학술·문화·생태 협력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문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한국·동아시아·러시아 극동 지역의 호랑이문화 비교연구
- 국내외 연구자·작가·예술가·생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와 포럼
- 국제 공동전시·출판·아카이브·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교류
- 호랑이·표범 및 초국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문화·생태 협력
- 각 지역의 호랑이 이야기와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호혜적 교류
- 정치·외교적 갈등을 넘어서는 비정치적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연구와 콘텐츠의 다언어 공유 및 국제 시민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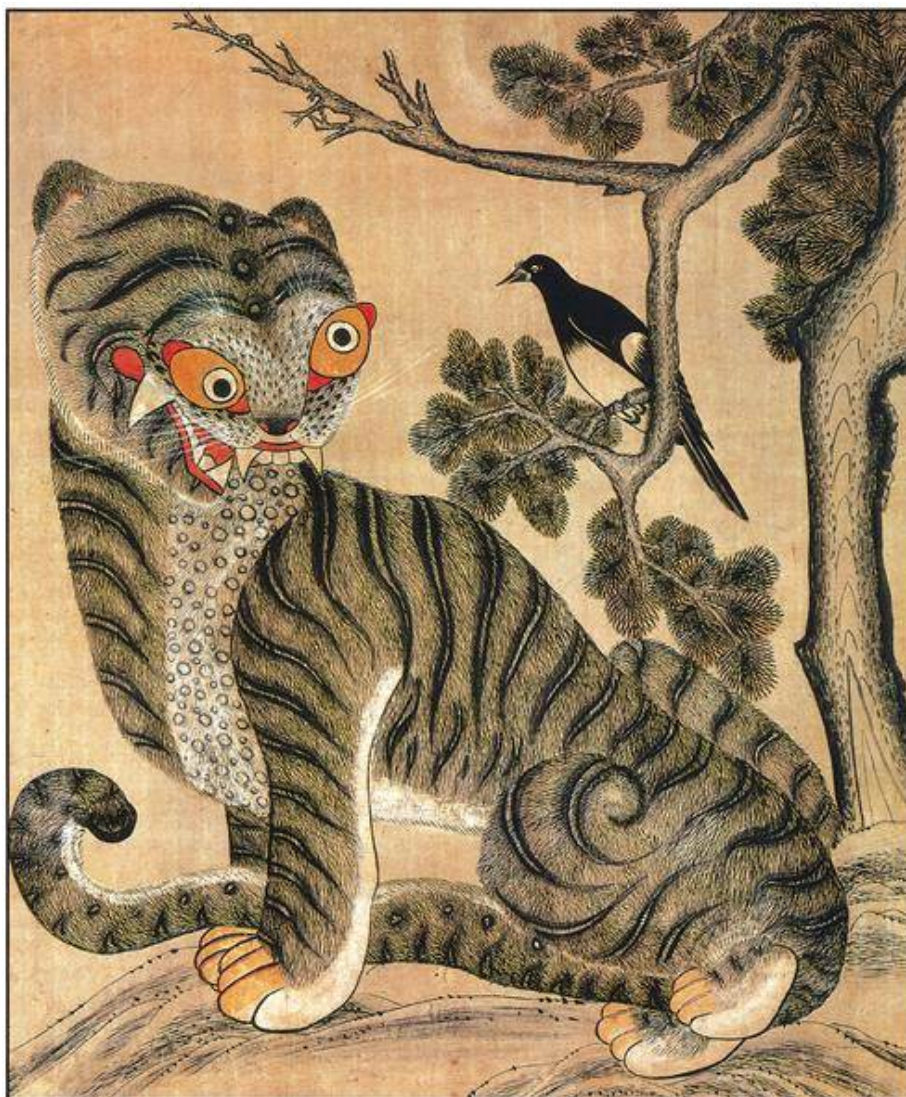
분야 간 연계 원칙

포럼의 주요 사업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기획한다. 예를 들어 민화와 설화를 조사·기록하는 사업은 문화원천·인문예술 분야에서 출발하지만, 현대 창작자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로 재해석되고, 전시·교육과 시민 참여로 확장되며, 국제 비교전시나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사업은 다음의 공통 원칙을 반영한다.

- 원천자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관련 공동체의 기여를 존중한다.
- 연구와 창작의 결과를 기록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적으로 공유한다.
- 일회성 행사나 상품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연구·전승·생태보전으로 이어지는 후속 구조를 마련한다.
- 분야별 성과와 자원이 다시 공동의 문화적 기반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5대 핵심 분야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식과 성과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한다.



까치호랑이 민화는 민속과 회화, 해학과 서사, 전통예술과 현대 캐릭터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복합 문화자산이다. 하나의 원천자료가 연구·아카이브·창작·전시·교육·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K-Tiger 문화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자 미상, 〈호작도〉, 97.4×80cm, 일본 개인소장)

4. 왜 한국이며, 왜 호랑이인가

하나의 대표상징이 아니라, 여러 문화를 잇는 상징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은 하나의 상징만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태극과 한글, 산과 달, 한옥과 단청, 도자기와 전통문양, 탈과 도깨비 등 서로 다른 의미와 역할을 지닌 풍부한 문화상징이 있다. 태극은 조화와 순환의 철학을, 한글은 언어와 지식의 창조성을, 한옥과 단청은 공간과 조형의 미학을, 산과 달은 자연관과 문학적 정서를, 탈과 도깨비는 민중적 상상력과 해학을 보여준다.

호랑이는 이러한 상징들을 대신하거나 한국 문화 전체를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유일한 표상이 아니다. 호랑이의 가능성은 오히려 설화·민속·신앙·역사·문학·회화·공연·생활문화·대중문화와 실제 자연이 하나의 상징 안에서 교차한다는 데 있다. 호랑이는 한국 문화의 여러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자,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축적된 다층적인 호랑이문화

호랑이는 동아시아 여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해석해 온 문화적 존재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산의 주인과 산신의 전령, 두려운 맹수와 인간적인 이웃, 권위의 상징과 풍자의 대상, 민족적 이미지와 친근한 캐릭터 등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

민화와 산신도에서는 신성함과 해학이 공존하고, 설화와 민담에서는 인간을 돕거나 속이고 심판하며, 문학과 역사기록에서는 공포·용맹·비극·저항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현대에는 스포츠 마스코트·디자인·애니메이션·캐릭터·영상 콘텐츠 속에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의미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호랑이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호랑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표장이라기보다, 시대와 창작자·지역·세대에 따라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열린 서사 자산**이다.

다른 문화상징과 구별되는 연결 가능성

각 문화상징은 저마다 고유한 강점을 지닌다. 태극과 한글은 국가적 식별력과 철학적·지적 의미가 강하며, 한옥·단청·도자기는 한국적 조형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산·달·소나무는 자연과 정서, 문학적 상상력을 폭넓게 담고 있고, 탈·도깨비·해치는 공연·설화·수호와 해학의 영역에서 풍부한 콘텐츠 가능성을 지닌다.

호랑이의 독특함은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데 있지 않다. 호랑이는 문화적 깊이와 풍부한 서

사, 강한 시각성과 캐릭터성, 세대 간 친숙성, 현대 콘텐츠로의 확장성에 더하여 **실제 자연 속 생명체로서의 생태적 현실성**까지 함께 지닌다. 따라서 호랑이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문화교육과 생물다양성, 지역의 기억과 국제교류까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징 유형	특히 강한 영역	호랑이가 더할 수 있는 연결
태극·한글	국가정체성·철학·언어	이야기·캐릭터·감성적 경험
한옥·단청·도자기	공간·조형·생활미학	움직이는 서사와 대중문화
산·달·소나무	자연관·문학·정서	인물성·행동성·캐릭터성
탈·도깨비·해치	민속·해학·수호·공연	실제 자연·생태보전과의 연결
호랑이	문화·서사·시각·생태	여러 영역을 잇는 복합적 매개

이 표는 상징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것

세계의 국가 문화상징도 하나의 이미지가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단풍잎은 명료한 시각성과 장기간의 공적 사용을 통해 강한 국가 식별성을 확보했고, 호주는 국기·국장·식물·동물 등 복수의 상징을 함께 사용하며 각기 다른 이야기를 부여한다. 뉴질랜드의 은고사리는 스포츠·군대·무역·관광을 가로지르는 반복적 활용을 통해 국가 이미지로 성장했으며,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은 현대에 설계된 관광 상징이 지속적인 공공 활용을 통해 도시국가의 대표 아이콘으로 정착한 사례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상징의 힘이 독점적 대표성이나 오래된 기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사회가 공유할 만한 이야기와 가치를 지니고, 교육·예술·관광·공공공간·콘텐츠 등 여러 영역에서 일관되면서도 창의적으로 활용되는가이다.

K-Tiger 역시 새로운 공식 국가상징을 하나 더 지정하려는 구상이 아니다.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한국 호랑이문화의 역사와 서사를 조사하고 가꾸며, 이를 현대 창작·교육·시민문화·생태보전과 연결하는 공공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제안이다.

K-Tiger가 지향하는 위치

K-Tiger의 가치는 호랑이 이미지를 단순한 국가브랜드나 상품 소재로 활용하는 데만 있지 않다. 그 이미지를 낳아 온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토대를 강화하고, 여기서 생성된 지식과 이야기가 현대 콘텐츠와 시민 경험으로 확장되며, 그 성과와 관심이 다시 문화

와 생태의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K-Tiger는 한국을 대표하는 다른 문화상징을 대체하는 상징이 아니라, 그 상징들이 담고 있는 문화와 이야기, 자연과 현대적 창조를 서로 연결하는 문화적 관문이다.

호랑이문화포럼이 호랑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하거나 우월한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라, 포럼이 지향하는 문화·생태·교육·콘텐츠·국제교류의 연결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로 구현할 수 있는 복합적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호돌이’

1988

서울하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새버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마스코트



‘흥이·나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마스코트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 온 한국의 호랑이 마스코트

1988년 호돌이에서 2018년 수호랑과 이후의 지역·국제행사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전통적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시대와 행사의 가치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이는 호랑이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열린 문화자산임을 보여준다.

5. K-Tiger Culture 플랫폼 비전

본 포럼이 지향하는 장기 비전은 다음과 같다:

**“문화의 뿌리에서 미래의 이야기가 자라나는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

호랑이를 통해 문화의 뿌리와 미래를 잇고,
문화와 자연이 함께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든다.

호랑이를 통해 흠어진 기억과 지식을 모으고,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창작하며, 그 성과를 다시 문화와 자연의 기반으로 돌려보낸다.

플랫폼이 만들어 갈 네 가지 연결

기억을 모으다

흠어진 문화·역사·예술·생태 자료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문화 자산으로 축적한다.

오늘의 언어로 잇다

연구자·전통예술가·작가·현대 창작자가 함께 문화적 원천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작한다.

시민과 세계가 경험하다

전시·교육·공연·콘텐츠·관광·국제교류를 통해 어린이와 시민,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감성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문화와 자연에 돌려주다

창작과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관심과 성과가 다시 연구·교육·전승·기초예술과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K-Tiger 문화생태계의 선순환

기록과 연구

- 해석과 창작
- 전시·교육·콘텐츠·시민 경험
-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확대
- 연구·창작·전승·생태보전으로 환류

6. 참여 구조와 상호가치 협력 방식

상호가치를 만드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

K-Tiger Culture 플랫폼은 특정 기관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학술·문화예술·콘텐츠·생태·교육·지역사회 분야의 다양한 참여자가 각자의 전문성과 자산을 연결하여 함께 구축해 가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이다.

포럼의 협력은 한쪽이 자원이나 재원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각 참여 주체는 연구·자료·창작·역량·공간·기술·재정·네트워크를 공동사업에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와 교육, 창작과 전시, 시민 참여, 브랜드와 사회적 가치, 국내외 네트워크 등의 성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참여 주체가 제공한 자산과 전문성은 포럼의 공동성으로 확장되고, 공동으로 형성된 지식·자료·콘텐츠·관심과 네트워크는 다시 각 참여 주체의 고유한 활동과 공동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기여 → 공동기획과 실행 → 참여 주체별 성과 창출 →

공동의 문화·생태 기반으로 환류

협력의 기본 원칙

상호 호혜성

모든 참여는 포럼의 공공적 목적뿐 아니라 참여 주체의 고유한 미션과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자율성과 선택성

참여 주체는 자신의 전문성·여건·관심에 따라 연구, 자문, 전시, 교육, 창작, 후원, 공간 제공, 홍보 등 적합한 방식과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 기획

사업의 목적과 역할, 기대성과를 초기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며, 단순 후원이나 명의 참여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기획을 지향한다.

기여와 권리의 존중

자료 제공자·연구자·전승 공동체·예술가·창작자·협력기관의 기여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지식재산권·성과물 활용 조건은 사업별 협의를 통해 정한다.

투명성과 환류

재정과 사업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연구·전시·콘텐츠·교육을 통해 형성된 성과가 다시 문화의 연구·창작·교육·전승과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참여 주체별 역할과 기대 가치

참여 주체별 기여-성과-환류 구조 요약표

참여 주체	주요 기여	참여 주체가 얻는 가치	공동 기반으로 환류되는 성과
대학·연구 기관	원천자료 조사·연구·검증, 분류·아카이브 체계 설계, 교육	공동 연구자료, 융합연구·연구비·국제협력 기회, 학생 현장교육	검증된 원천자료, 연구성과 공개, 인재 양성
박물관·문화기관	소장자료 조사·발굴·해설·디지털 화, 보존·전시	소장품 가치 재발견, 정보 체계화, 신규 전시와 관람객 확대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자료, 자료의 공공 접근성 확대
예술가·작가·창작자	창작과 현대적 재해석, 시민과의 문화적 소통	검증된 원천자료, 발표·유통·산업적 활용 기회, 협업망,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창작과정 기록, 시민교육, 후속 창작과 새로운 문화자산
기업·문화 콘텐츠산업	제작·투자·기술·유통·브랜딩	차별화된 IP, 안정적인 권리관계, ESG 가치, 창작자·기관 협업망	공정한 보상, 공동기획, 후속 창작·아카이브·교육·생태보전 지원
환경·교육 기관	생태·전통문화·정체성·다문화 교육 전문성과 시민 프로그램	통합교육 모델, 신규 참여층, 다언어·감성적 교육도구, 기관 간 협력과 사업재원	생태감수성·문화이해·문화 간 소통 증진, 교육자료와 시민 참여 확대
지방자치 단체·공공 기관	지역자료·공간·행정조 정·공공시설·정책 및 지역 네트워크	지역브랜드, 문화관광, 시민 프로그램, 기존 자산과 부서 간 연계 활성화	지역문화 보전, 지역 창작 기반, 지속적인 시민 참여
재단·공익 후원기관	초기·다년간 재원, 공동기획, 전문자문, 네트워크, 성과평가·확산	대표 공익사업, 검증 가능한 사회적 성과, 협력 포트폴리오, 장기 지원모델	연구·아카이브·인재·창작·교육·생태보전 기반과 후속사업 강화
전승 공동체·지역사회·시민	구술·생활문화·지역지식, 현장 경험, 참여와 공동기획	문화적 기억의 기록·공유, 창작·교육·지역활동 기회, 소속감과 자긍심	살아 있는 전승, 지역 기반 강화, 지속적인 시민 참여

이 표의 '환류'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형태의 재원이나 성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별 역할과 여건에 따라 지식·자료·창작물·교육성과·기술·네트워크·재원·후속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문화·생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1. 대학·연구기관

대학과 연구기관은 호랑이문화포럼의 학술적 기반을 형성하고, 호랑이 관련 문화·역사·예술·생태 원천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연구·검증하는 핵심 거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를 연결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전시·교육·콘텐츠로 확장함으로써 미래 세대 연구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주요 참여 방식

- 호랑이 관련 문헌·설화·구술·민속·예술·역사·생태 원천자료의 조사와 발굴
- 지역별·시대별·분야별 호랑이문화 비교연구
- 조사자료의 학술적 검증·해설·번역 및 주석
- 원천자료의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기준 개발
- 문헌·구술·시각·청각·생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대학 간 공동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
- 융합 교과목·학생연구·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 연구성과의 출판·전시·교육자료·콘텐츠 원천자료로의 확장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기존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새로운 융합연구 의제와 연구자료 확보
- 단독 기관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원천자료에 대한 접근
- 공동연구비·학술출판·국제협력 사업 기획 기회 확대
- 학생들에게 현장조사·자료해석·디지털 인문학·아카이브 구축 경험 제공
- 연구성과를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교육·시민문화·콘텐츠로 확산
- 박물관·문화기관·예술가·기업·지자체와의 장기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대학의 학제 간 연구, 사회공헌 및 공공적 영향력 강화

2. 박물관·미술관·문학관 및 문화기관

박물관과 문화기관은 소장자료와 현장자료를 발굴·보존·해설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전문기관으로서 K-Tiger 원천자료 아카이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민화·산신도·문헌·공예품·사진·영상·문학자료·생활문화 자료를 새롭게 조사하고, 기관 간 자료를 연결하여 호랑이문화의 전체적 맥락을 보여주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와 전시·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주요 참여 방식

- 기관 소장 호랑이 관련 자료의 전수조사와 재발굴
- 미등록·미분류 자료 및 지역 현장자료의 발굴

- 작품·유물·문헌의 기본정보, 유래, 제작시기, 작가, 소장경위 등 조사
- 자료의 실측·촬영·고해상도 디지털화와 보존상태 기록
- 표준화된 목록 작성, 메타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관한 연구와 해설
- 소장기관 간 공동조사·자료교류·공동전시·순회전시
- 조사성과를 활용한 도록·교육자료·온라인 전시·창작자용 원천자료 제작
- 자료의 저작권·소유권·복제 및 이용조건 정비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기존 소장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연구성과를 축적
- 미등록·저평가 자료의 발굴과 소장품 정보의 체계화
- 자료의 디지털 보존과 온라인 접근성 향상
- 다른 기관 소장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소장품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확장
- 공동 데이터베이스·전시·도록·교육자료 등 장기 활용 가능한 결과물 확보
- 연구자·예술가·창작자와의 협업을 통한 소장자료의 현대적 재해석
- 공동·순회·국제전시를 통한 기관의 인지도와 관람객층 확대
- 어린이·가족·청년 등 새로운 관람객과의 접점 형성
- 기관의 조사·수집·보존·연구·교육 기능을 함께 강화

대학·박물관 공동 원천자료 사업의 예시

대학과 박물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은 원천자료에 학술적 조사체계와 비교·분석·해석을 더하고, 박물관은 실물 자료의 조사·보존·소장 경위·전시·이용에 관한 전문적 맥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호랑이 관련 원천자료 사업에서 대학 연구진은 민화·산신도·문학·설화 등의 조사 기준과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할 수 있다. 박물관과 문화기관은 소장자료의 조사·촬영과 함께 작품·유물의 기본정보, 소장 경위, 보존 상태 및 저작권·이용 조건 등의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

양측은 공동으로 자료의 내용과 출처를 검증하고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해설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성과는 학술 출판과 공동 전시, 교육자료, 온라인 콘텐츠 및 창작자용 원천자료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은 다음과 같은 문화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소장자료의 조사·발굴

- 학술연구와 해설
- 분류·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시·교육·창작·콘텐츠 활용
-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추가 자료의 발굴

3. 예술가·작가·창작자

예술가·작가·창작자는 전통 호랑이문화와 생태적 의미를 오늘의 감수성과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의 문학·예술·디자인·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핵심 참여자이다. 포럼은 이들을 단순한 작품 제공자나 재능기부자가 아니라,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획자이자 창작물의 권리 주체로 존중한다.

포럼은 연구자·전통예술가·현대 창작자·콘텐츠 산업 간 협업을 통해 작품이 전시와 출판을 넘어 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문화상품·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확장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이름과 기여를 명확히 기록하고, 저작권과 이용 범위, 2차적 활용, 수익배분 및 보상 조건을 사전에 투명하게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주요 참여 방식

- 문학·시각예술·디자인·공연·스토리텔링·디지털 콘텐츠 창작
- 연구자·전통예술가·생태 전문가 및 콘텐츠 기업과의 공동기획
- 전시·공연·출판·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문화상품 개발
- 원천 문화자료를 활용한 신규 작품과 콘텐츠 IP의 개발
- 시민·어린이 대상 강연·워크숍 및 창작교육
- 창작과정과 작품 정보의 기록·아카이브 참여
- 국내외 전시·출판·유통·라이선싱 및 콘텐츠 협력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연구자 검증을 거친 신뢰도 높은 원천자료와 새로운 창작 소재 확보
- 전통예술·인문학·생태·기술 분야 전문가와의 융합 협업 기회
- 작품을 전시·출판·공연에서 영상·캐릭터·상품·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할 기회
- 문화기관·기업·지방자치단체·해외기관과의 발표·유통·사업 네트워크 확대
- 작품과 창작과정, 창작자의 기여가 명확히 기록되는 포트폴리오와 아카이브 구축
- 창작자의 이름과 작품 출처가 적절히 표시되는 공공적 인지도 확대
- 창작비·원고료·작품 사용료·라이선스료·2차 활용료·수익배분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
- 지속적인 후속 창작과 공동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협력 기반 형성

4. 기업·문화콘텐츠 산업

기업·문화콘텐츠산업은 출판·방송·영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디자인·공연·전시·문화상품·디지털 플랫폼·관광 등 문화적 원천을 현대적으로 창작·제작·유통·확산하는 다양한 산업 주체를 포괄한다.

기업과 콘텐츠산업은 문화적 원천과 창작자의 작품을 기술·제작·투자·유통·브랜딩 역량을 통해 더 넓은 시민과 시장으로 확장하는 핵심 협력 주체이다. 포럼은 기업을 단순한 후원자나 콘텐츠의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연구자·박물관·전승 공동체·예술가·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공동기획자이자 문화생태계의 파트너**로 본다.

K-Tiger 문화생태계에서 기업과 콘텐츠산업의 역할은 호랑이 이미지를 상품이나 홍보에 단

편적으로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문화적 원천의 역사와 맥락을 존중하고, 연구자와 창작자의 전문성을 제작과 유통 역량에 연결하여 신뢰도 높은 이야기·캐릭터·영상·공연·전시·문화상품·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와 원천자료 제공자의 기여를 명확히 인정하고, 저작권·이용 범위·2차 활용·보상과 수익배분 조건을 투명하게 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본 전제이다.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심과 성과의 일부가 후속 창작과 원천자료 조사·아카이브·교육·전승·생태보전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문화적 기반의 강화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동반성장 구조를 지향한다.

주요 참여 방식

- 연구자·박물관·전승 공동체·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기획
- 원천 문화자료를 활용한 스토리·캐릭터·디자인·영상·애니메이션·공연·게임·디지털 콘텐츠 개발
- 문화상품·전시·체험·관광 콘텐츠의 공동개발과 유통
- K-Tiger 관련 시범 콘텐츠와 프로토타입 제작
- 전시·교육·아카이브를 위한 기술·제작·공간·유통·홍보 지원
- 어린이·청소년·시민을 위한 문화·생태 분야 ESG-CSR 프로그램
- 국내외 플랫폼과 유통망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 창작자와 원천자료 제공자의 권리·출처·기여를 존중하는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 작품 이용과 콘텐츠 성과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유
- 콘텐츠 성과를 후속 창작·연구·아카이브·교육·전승·생태보전으로 환류하는 협력모델 개발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연구자와 박물관이 검증한 신뢰도 높은 문화원천과 자료에 대한 접근
- 역사적 깊이와 한국적 서사를 갖춘 차별화된 스토리·캐릭터·IP 발굴
- 문화적 오류나 부적절한 활용, 저작권 분쟁 위험의 사전 예방
- 창작자·연구자·전통예술가·문화기관과의 안정적인 협업 네트워크 확보
- 시범사업을 통한 콘텐츠의 사회적 반응과 사업 가능성 검토
- 전시·교육·시민 프로그램을 활용한 브랜드의 공공적 접점 확대
- 문화·교육·생물다양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ESG-CSR 사업 개발
- 일회성 후원을 넘어 기업의 기술·콘텐츠·유통 역량과 연결되는 장기 파트너십 구축
- 원천문화와 창작 기반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신규 소재와 콘텐츠 개발 기반 확보
- 공정한 창작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신뢰와 사회적 가치 제고

창작자-문화산업의 동반성장 원칙

문화산업의 성과는 어느 한 주체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적 원천을 조사·보존·해설하는 연구자·박물관·전승 공동체, 이를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예술가·작가·창작자, 그리고 제작·투자·기술·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콘텐츠산업의 역량이 결합되어 공동의 가치가 형성된다.

포럼은 창작자와 원천문화의 제공 주체를 단순한 자료·작품 공급자가 아니라 공동기획자이자 권리 주체로 존중한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를 협의하고, 저작권·출처 표시·이용 범위·2차 활용 및 보상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작품과 콘텐츠가 전시·출판·영상·캐릭터·공연·문화상품·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확장되어 성과를 거둘 경우, 사업의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창작비·작품 사용료·라이선스료·성과보너스·2차 활용료·수익배분 등 적절한 보상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성과와 관심이 후속 창작과 원천자료 조사·아카이브·교육·전승·생태보전의 기반으로 환류되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별 특성과 참여자의 기여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창작자와 문화적 원천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안정적인 권리관계, 신뢰도 높은 콘텐츠, 지속적인 창작 기반과 장기 협력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함께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며, 그 성과를 다음 연구와 창작의 기반으로 돌려주는 것이 K-Tiger 문화생태계의 동반성장 원칙이다:

공동기획 → 공정한 권리와 보상 → 투명한 성과공유 → 문화적 기반으로의 환류

5. 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기관은 호랑이를 실제 자연 속 생명체이자 여러 시대와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문화적 존재로 활용하여, 생태와 문화·역사·예술·정체성·다양성을 연결하는 통합교육을 개발할 수 있다.

호랑이는 어린이와 시민에게 친숙하고 시각적·서사적 호소력이 큰 상징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기후위기·야생생물 보전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의제를 이야기와 그림, 문학과 체험을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동시에 설화·민속·민화·산신도·문학·생활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통문화가 오늘의 생활과 창작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호랑이문화 교육은 하나의 고정된 민족 정체성을 주입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축적해 온 문화적 기억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해석하는 개방적 교육을 지향한다. 여러 지역과 문화권의 호랑이 이야기, 동물상징과 자연관을 비교하고, 다문화 배경의 어린이와 시민이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함께 발견하는 상호문화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주요 참여 방식

- 생물다양성·기후위기·야생생물 보전·생명존중 교육
-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및 최상위 포식자의 생태적 역할 교육
- 설화·민속·민화·산신도·문학·생활문화를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
- 전통 호랑이문화와 현대 캐릭터·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교육
-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언어와 감각으로 호랑이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창작교육
- 지역의 호랑이 설화·지명·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정체성 교육
- 세대별 호랑이 기억과 이야기를 수집·공유하는 세대 간 문화전승 프로그램
- 여러 문화권의 호랑이 이야기와 동물상징을 비교하는 다문화·상호문화 교육
- 다문화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에 존재하는 동물 이야기와 자연관을 소개하는 참여 프로그램
- 학교·가족·시민 대상 전시·탐방·낭독·스토리텔링·미술·놀이·체험 프로그램
- 교사·해설사·환경교육가·문화예술교육가·다문화교육 활동가 연수
- 연구자·예술가·전통문화 전문가·생태 전문가가 함께하는 융합교육
- 다언어 교육자료·교구·영상·전시 콘텐츠의 공동개발
- 교육 결과물의 전시·출판·디지털 아카이브화
- 실제 호랑이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캠페인 연계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호랑이라는 친숙한 상징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문화·환경 의제를 감성적이고 쉽게 전달
- 환경·역사·문학·미술·사회·지역교육을 연결하는 융합교육 모델 개발
- 어린이·가족·청소년·다문화 구성원 등 다양한 교육 참여층 확대
- 전통문화를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의 창작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교육 방식 확보
- 지역의 설화·민속·문화유산을 활용한 장소 기반 교육과 지역 정체성 강화
-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사·환경교육가·문화예술교육가·다문화교육 활동가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대학·박물관·예술가·기업·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교육 및 사업재원 발굴 기회
- 공동개발한 교육자료·교구·영상·전시 콘텐츠의 지속적 활용
- 교육과정과 참여 결과를 기록하여 연구·전시·후속 프로그램으로 확장
- 참여도·문화 이해·생태감수성·상호문화 역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축적

이 분야의 핵심 참여 가치는 호랑이의 문화적 친숙성과 풍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전통문화·문화정체성·다문화·창의교육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통합교육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호랑이문화 교육의 네 가지 축

생태와 생명

호랑이와 서식지,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배운다.

전통과 문화

설화·민속·민화·신앙·문학·생활문화 속 호랑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여러 층위를 이해한다.

정체성과 세대

지역과 가족, 세대별로 전승되어 온 호랑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

다양성과 공존

여러 문화권의 호랑이와 동물 이야기를 비교하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각자의 문화와 자연관을 함께 나눈다.

호랑이문화 교육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교육을 지향한다.

6.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역에 축적된 호랑이 관련 지명·설화·산·사찰·민화·문학·생태·생활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지역의 정체성·시민교육·문화관광·공공디자인과 연결하는 핵심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역브랜드는 새로운 로고나 마스코트를 만드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발굴하고, 이를 전시·탐방·교육·공공공간·축제·콘텐츠·지역상품 등 시민과 방문객이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문화·생태·공간 자산을 하나의 지역 서사로 연결하고, 지역 예술가·학교·박물관·상인·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소 기반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할 수 있다.

K-Tiger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호랑이 이미지를 적용하는 획일적인 브랜드가 아니다. 각 지역의 산과 지명, 설화와 민속, 사찰과 산신도, 문학과 미술, 생태와 생활문화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호랑이 이야기를 발굴하여 지역마다 서로 다른 K-Tiger 서사와 경험을 만드는 개방형 지역브랜드 체계를 지향한다.

주요 참여 방식

- 지역의 호랑이 관련 지명·설화·민속·사찰·미술·문학·생태 자료 조사와 아카이브 구축
- 지역 호랑이문화 자산을 시각화한 문화생태계 지도 제작
-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을 반영한 브랜드 서사와 시각체계 개발
- 산·사찰·박물관·문학관·마을·시장 등을 연결하는 탐방 경로 조성
- 지역자료를 활용한 전시·축제·교육·공공미술·스토리텔링 프로그램
- 어린이·가족·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생태 프로그램
- 지역 예술가·작가·학교·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창작 프로젝트
- 지역 소상공인·관광사업자·콘텐츠기업과 연계한 문화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공공공간·안내체계·교통·관광홍보물 등에 지역 호랑이문화 적용
- 지역브랜드 사용 기준과 저작권·라이선싱·수익 환류 원칙 마련
- 국내외 호랑이문화 도시·지역 간 전시·교육·관광·생태 교류
- 방문객·시민 참여·교육·지역경제·문화자산 축적 등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평가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분산되어 있던 지역 문화·역사·생태 자산을 하나의 이야기와 경험으로 재구성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도시브랜드 형성
- 기존 박물관·사찰·산·문학관·시장·관광지의 연계 활용과 방문 동선 확장
- 어린이·가족·청소년·시민이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확보
- 체류형·교육형·가족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 예술가·작가·기획자에게 새로운 창작과 발표 기회 제공
-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문화상품·체험·관광사업 발굴
- 주민이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 강화
- 문화·관광·교육·환경·도시디자인 부서 간 융합행정의 실증모델 구축
- 다른 도시 및 해외 지역과 연결되는 문화·생태 교류 네트워크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참여 가치는 새로운 상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와 자연, 장소와 기억을 호랑이라는 친숙한 매개로 연결하여 시민에게는 지역 정체성을, 방문객에게는 차별화된 문화경험을, 지역사회에는 지속적인 창작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K-Tiger 지역 브랜딩 구조 예시

지역의 호랑이문화 조사

-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장소 발굴
- 주민·연구자·예술가의 공동해석
- 탐방·전시·교육·공공미술·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기업과 창작자의 참여
- 성과를 지역문화 조사·교육·생태보전으로 환류

실제 야생동물과 연결되는 지역 브랜딩에서는 관광과 흥행에 앞서 동물복지·생태적 정확성·서식지 보전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호랑이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자연 속에서 보전되어야 할 생명체라는 점이 K-Tiger 브랜딩의 중요한 윤리적 차별성이기 때문이다

동물 상징을 지역·도시 브랜드로 확장한 해외 사례

일본 구마모토현의 곰 캐릭터 '구마몬'

구마몬은 규슈신칸센 개통을 계기로 탄생한 구마모토현의 홍보 캐릭터로, 단순한 관광 마스코트를 넘어 지역상품·문화예술·교육·스포츠와 구마모토 홍보에 활용되는 통합 브랜드로 발전하였다. 구마모토현은 민간사업자가 상품·포장·홍보 등에 구마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용허락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구마몬 이용허락 상품의 최종 소매 매출액은 약 1,627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자체 수입이 아니라 구마몬을 사용한 상품의 전체 소매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지역 상징을 공공기관만 독점하기보다, 품질과 이용기준을 관리하면서 지역기업·창작자·시민이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면 지역브랜드의 접점과 산업적 확장성이 커질 수 있다.

독일 베를린의 곰과 '버디 베어'

곰은 오랫동안 베를린 문장과 깃발에 사용되어 온 도시상징이다. 베를린은 이를 고정된 문장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여러 예술가가 각기 다르게 채색한 '버디 베어' 공공조각으로 재해석하였다. 베를린 공식 관광자료는 곰을 활용한 역사·현대 미술작품이 도시 곳곳에 600점 이상 존재한다고 소개하며, 약 500개의 버디 베어가 베를린 거리에서 관용과 국제적 개방성을 표현하는 도시경관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사점: 하나의 동물 형상을 여러 예술가와 공동체가 자유롭게 재해석하게 하면, 상징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기관별·문화별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다. 공공미술·도시탐방·시민참여·국제교류를 함께 연결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머라이언은 어촌이었던 싱가포르의 역사와 '사자의 도시'라는 명칭을 결합하여 1960년대 관광 상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후 도시를 대표하는 지속적인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발전하였다. 싱가포르관광청은 머라이언을 공식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하고 이용 신청과 사용조건을 운영하면서도, 상품·캐릭터·관광 캠페인 등에서 시대에 맞게 계속 재해석하고 있다.

시사점: 전통적으로 오래된 상징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을 설득력 있게 압축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활용하며, 이용허락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면 강력한 도시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가상징이 지역·도시 브랜드로 구체화되는 사례

판다는 중국을 국제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인 동시에, 청두의 연구·보전·교육·관광·도시문화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두는 자이언트판다 번식연구기지와 판다박물관, 자연교육,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국제행사 마스코트와 지역상품을 연결하여 '판다 수도'라는 도시 이미지를 발전시켜 왔다. 국가적 상징이 지역에서는 실제 장소·기

관·전문성·시민 경험을 갖춘 도시브랜드로 구체화된 사례다.

비슷하게 인도의 국가동물인 호랑이는 마디아프라데시주의 'Tiger State' 브랜드와 보호 구역 관광으로, 태국의 국가동물인 코끼리는 수린주의 지역 전통·축제·관광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상징인 캥거루는 캥거루아일랜드의 야생동물·생태관광 자산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시사점: 국가적 동물상징이 지역브랜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지역만의 역사와 장소, 실제 생태와 전문기관, 시민·창작자·지역산업의 참여,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관광·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 사례들은 동물 이미지 하나만으로 지역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에 뿌리내린 이야기, 박물관·공공공간·교육·관광·예술·지역산업을 연결하며, 시민과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용체계와 명확한 관리기준에 따른 장기적 관리체계가 작동할 때 동물 상징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자산으로 발전한다.

7. 재단·공익후원기관

재단과 공익후원기관은 전통문화·문학·인문학·기초예술·미래 세대·다문화사회·생태보전을 연결하는 중장기 공익사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K-Tiger 문화생태계에는 원천자료 조사와 아카이브, 신진 연구자와 창작자 지원, 교육모델 개발, 시민 참여와 생태보전처럼 시장의 수익만으로 지속하기 어렵고 단년도 공공사업만으로 충분히 축적하기도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재단과 후원기관은 이러한 문화생태계의 빈공간을 지원하고, 아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재단의 참여는 단순한 사업비 후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단이 축적한 전문성과 공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공동기획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기관과 재원을 연결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후속사업과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주요 참여 방식

- 원천자료 조사·연구·아카이브·출판 사업 지원
- 전통문화·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창작·교육·전승 기반 지원
- 신진 연구자·예술가·작가·기획자를 위한 연구비·창작비·펠로십 지원
- 어린이·청소년·다문화 공동체·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
- 생물다양성·야생동물·서식지 보전과 문화교육을 연결하는 공익사업 지원
- 소규모 시범사업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위한 초기 자원 제공
- 디지털 아카이브·교육 플랫폼·관리관리체계 등 공동 기반 구축 지원
- 사업기획·저작권 자문·성과평가·기록 등 실행역량 강화 지원
- 국내외 전문가·재단·문화기관·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 공동모금·매칭펀드·다기관 협력 등 후속 자원 조성

- 지원성과의 출판·전시·정책제안·교육자료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
- 우수 시범사업의 다년간 지원과 다른 지역·기관으로의 확장

참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 성과

- 재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 분야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대표사업 발굴
- 문화·교육·환경·미래 세대·다문화사회가 결합된 통합적 사회가치 창출
- 연구자료·아카이브·교육자료·창작물·참여자·협력기관 등 확인 가능한 성과 확보
- 단기 행사 후원을 넘어 문화적 기반과 인적 역량을 축적하는 장기 지원모델 구축
- 대학·박물관·창작자·교육기관·기업·지자체가 참여하는 확장성 높은 협력 포트폴리오 형성
-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증하고 정규사업이나 공공정책으로 확장하는 경험 축적
- 다른 기관의 전문성·공간·기술·재원을 결합하는 지원 효과의 확대
- 지원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공익사업 설계에 활용할 학습자료 확보
- 지속 가능한 문화·창작·교육·생태보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공익적 리더십 강화
- 재단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남는 아카이브·교육체계·인재·네트워크 등 장기적 유산 확보

재단은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보태는 후원자가 아니라, 시장과 공공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문화생태계의 기반을 지원하고 새로운 모델이 성장할 시간을 제공하는 전략적 공익 파트너이다. 사업별 성과는 단순한 행사 횟수나 참여 인원뿐 아니라, 새롭게 조사·공개된 자료, 지원받은 연구자와 창작자, 개발된 교육자료, 참여자의 인식과 역량 변화, 형성된 협력관계, 후속사업과 자원 연계, 문화·생태 기반으로의 환류 등을 함께 평가한다.

재단과 후원기관의 기여는 명확히 기록하고 적절히 알리되, 지원이 학술적 독립성·창작의 자율성·자료의 공공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지원금의 목적과 사용내역, 성과와 이해관계는 투명하게 공유하며, 공공적으로 축적된 자료와 성과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단과 후원기관의 핵심 참여 가치는 개별 행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이나 단년도 사업만으로는 충분히 지원되기 어려운 연구·아카이브·기초예술·교육·생태보전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작은 실험이 검증된 공공문화 모델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단기 후원을 넘어 문화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지원

재단과 후원기관은 완성된 행사나 콘텐츠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조사·연구·인재·아카이브·교육·협력 기반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의제와 주체의 발굴

- 소규모 시범사업 지원
- 성과의 기록과 평가
- 우수모델의 다년간 확장
- 공공정책·교육·지역사업으로의 확산
- 문화와 생태의 공동 기반으로 축적

이러한 지원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만을 추구하기보다, 연구와 창작이 축적되고 새로운 인재와 기관 간 협력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 결과 재단의 지원은 하나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나아가, 여러 후속사업과 참여 주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된다.

재단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지식·자료·인재·교육모델·협력 네트워크가 남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공익지원의 중요한 성과이다.

참여 수준과 협력 방식

아래 세 단계는 참여 주체의 서열이나 의무적인 발전 순서가 아니라, 협력의 범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든 참여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

1단계: 점점 형성·지식교류

- 포럼·세미나·원탁토론·시민 프로그램 참여
- 전문가 자문과 의제 제안
- 자료·사례·작품·전문정보 공유 및 권리조건 협의
- 협력 수요와 아이디어 제안
- 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2단계: 공동기획·프로그램 협력

- 공동연구·조사·아카이브 사업
- 공동전시·교육·창작·생태·시민 참여 프로그램
- 시범사업과 콘텐츠 파일럿 공동기획·실행
- 공간·장비·인력·기술·자원 지원
- 참여자의 역할·권리·보상·성과 활용 기준 협의
- 사업성과의 기록·공유 및 후속사업 검토

3단계: 지속적·전략적 파트너십

- 연간 또는 다년간 공동사업
- 공동 운영·의사결정 및 성과관리 체계
- 재정·기술·유통·국제 네트워크의 지속적 협력
- 공동 플랫폼·아카이브·교육체계·문화거점 구축
- 장기적인 문화생태계 환류모델 공동개발
- 검증된 사업의 지역·전국·국제적 확산

참여 주체는 처음부터 장기적·포괄적 협력을 약속할 필요 없이 자문, 자료 공유, 단일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출발할 수 있다. 상호 경험과 신뢰가 형성되면 공동기획과 시범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필요에 따라 다년간 사업과 공동 플랫폼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목적의 단기 협력만을 지속하는 것도 존중한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통해 각 참여 주체는 자신의 전문성과 자산을 새로운 연구·창작·교육·콘텐츠·시민 경험으로 확장하고, 단독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성과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그 성과는 연구·아카이브·교육·전승·생태보전의 공동 기반으로 돌아가 다른 참여자의 활동과 후속사업을 가능하게 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이 지향하는 협력은 누군가의 기여를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참여자의 성장이 공동의 문화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의 성장이 다시 참여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는 상호가치의 순환구조이다.

7. 초기 실행 프로그램 (Pilot)

호랑이문화포럼은 초기 단계에서 작지만 실행 가능한 공동사업을 통해 참여자 간 협력 경험과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고자 한다. 각 시범사업은 단독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K-Tiger Culture 플랫폼을 구성할 제도·자료·인력·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축적하는 과정으로 추진한다.

초기 시범사업의 선정 원칙

초기 실행 프로그램은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참여기관과 자원·인력의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둘 이상의 참여 주체가 공동기획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는가
-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남길 수 있는가
- 연구·창작·교육·콘텐츠 가운데 둘 이상의 영역을 연결하는가
- 자료 출처와 창작자의 권리·기여·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사업과정을 기록·평가하여 후속사업과 다른 지역·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 성과가 문화적 기반과 실제 생태보전으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파일럿의 목적은 행사의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K-Tiger 문화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작게 검증하고 축적하는 데 있다.

우선 추진을 검토할 대표 시범사업 예시

다음 사업들은 초기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대표 후보군이며, 실제 추진사업과 순서는 참여기관·자원·인력에 따라 결정한다.

① 포럼·협력 네트워크와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주요 내용

-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과 분야별 원탁회의
- 대학·박물관·창작자·교육기관·기업·지자체·생태기관의 자산과 협력 수요 조사
- 기관·인물·자료·공간·사업을 시각화한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제작
- 국내외 연구자·문화기관·생태기관 네트워크 구축
- 후속 공동사업 후보와 참여기관별 역할 발굴

예상 결과물

- 참여기관·전문가 네트워크 목록
- 분야별 협력 의제
-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 후속 공동사업 기획서

② 대학-박물관 K-Tiger 원천자료 아카이브

주요 내용

- 민화·산신도·문학·설화·구술·사진·생태자료 가운데 한두 개 주제를 선정
- 대학 연구진이 조사기준·분류체계·메타데이터 항목 설계
- 박물관·문학관·문화기관이 소장자료 조사·촬영·보존 및 권리정보 정리
- 양측이 자료의 출처·내용·역사적 맥락을 공동 검증·해설
- 제한된 범위의 시범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전시 구축
- 연구자·교육자·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료 안내서 제작

예상 결과물

- 표준 조사·분류·메타데이터 기준
- 검증된 시범 아카이브
- 창작자·교육자용 자료 안내서
- 공동전시 또는 온라인 전시
- 후속 조사 대상과 기관 간 DB 연계방안

③ 전통문화·기초예술-현대 콘텐츠 공정협업랩

주요 내용

- 연구자·전통예술가·작가·디자이너·영상·애니메이션·공연 창작자의 공동 워크숍
- 하나의 설화·민화·문학·생태자료를 여러 장르로 재해석
- 소규모 전시·출판·캐릭터·영상·공연 등의 프로토타입 제작
- 출처 표시, 창작자 기여, 저작권 귀속, 이용 범위, 변형과 2차 활용 조건 협의
- 창작비·작품 사용료·라이선스료·성과보상 등에 관한 시범 계약 적용
- 결과물뿐 아니라 조사·협업·계약·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기록

예상 결과물

- 공동창작 프로토타입
- K-Tiger 공정협업 표준합의서 또는 계약서 초안
- 참여자별 권리·기여 표시 기준
- 전시·교육·산업적 활용 가능성 평가
- 후속 콘텐츠 개발계획

④ 호랑이문화 통합교육·시민참여 시범사업

주요 내용

- 호랑이카페·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등 기존 경험을 활용한 교육모듈 개발
- '생태와 생명-전통과 문화-정체성과 세대-다양성과 공존'의 네 축을 연결
- 어린이·가족 대상 설화·민화·문학·생태 체험 프로그램
- 여러 문화권의 호랑이·동물 이야기를 비교하는 다문화·상호문화 프로그램

- 세대별 호랑이 기억과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는 구술·창작 활동
- 연구자·예술가·생태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수업과 워크숍
- 다언어 교육자료와 교구 시범 제작
- 참여자의 문화 이해·생태감수성·상호이해 변화 평가

예상 결과물

- 통합교육 프로그램 모형
- 교사용 안내서·교구·영상자료
- 어린이·시민 창작물과 구술자료
- 다언어 자료
- 참여자 반응과 교육효과 평가보고서

⑤ 지역 K-Tiger 문화지도·탐방 시범사업

주요 내용

- 한 지역의 호랑이 관련 산·지명·설화·사찰·미술·문학·생태 자료 조사
- 주민·연구자·박물관·학교·예술가가 참여하는 지역 이야기 발굴
- 지역 호랑이문화 지도와 탐방 경로 시범 제작
- 소규모 전시·스토리텔링·교육·공공미술 또는 지역상품 실험
- 지역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참여방안 마련
- 지역브랜드 이용·저작권·수익 환류 원칙 검토

예상 결과물

- 지역 호랑이문화 자산 지도
- 시범 탐방코스와 해설자료
- 지역 연계 전시·교육 프로그램
- 장소 기반 브랜드 서사
- 다른 지역으로 확장 가능한 표준모델

⑥ 호랑이문화-생태보전 연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전시·교육·창작물에 실제 호랑이와 서식지 정보를 함께 제공
-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영상·교육자료로 전환
- 어린이·시민 프로그램을 호랑이·표범 보전 캠페인과 연계
- 행사나 콘텐츠 수익·후원금 일부를 연구·교육·현지 보전에 환류하는 방식 검토
- 문화 참여가 실제 보전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민 참여모델 실험

예상 결과물

- 문화-생태 통합 전시 또는 교육자료
- 시민 참여·후원 프로그램
- 국제 연구성과의 대중화 콘텐츠

- 투명한 보전 환류 기준

대표 시범사업 예시 요약

대표 시범사업	주요 참여 주체	핵심 결과물	후속 확장
포럼·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포럼·대학·문화·생태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도·공동의제·파트너망	정례포럼·다기관 사업
대학·박물관 원천자료 아카이브	대학·박물관·연구자	메타데이터·시범 데이터베이스·자료안내서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창작·콘텐츠 협업랩	연구자·예술가·기업	프로토타입·공정협업 기준	라이선싱·콘텐츠 제작
통합교육·시민참여	교육·환경기관·창작자·시민	교육모듈·교구·평가자료	학교·지역 교육 확산
지역 문화지도·탐방	지자체·주민·문화기관	지역지도·탐방·지역 프로그램	지역브랜드 네트워크
문화·생태보전 연계	생태기관·국제기관·시민	교육·캠페인·환류모델	국제 보전·공공외교 협력

모든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성과 환류 원칙

- 조사·연구·창작·교육의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아카이브한다.
- 전시와 콘텐츠 결과물을 교육·출판·후속 연구에 재활용한다.
- 자료 제공자·연구자·창작자의 이름과 기여를 명확히 표시한다.
- 저작권·이용 범위·2차 활용·보상 조건을 사전에 협의한다.
-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콘텐츠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식·자료·관심·수익 등의 성과가 후속 연구·창작·교육·전승·생태보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참여자와 기관의 경험을 평가하여 다음 사업의 설계에 반영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물뿐 아니라 협업 과정, 권리관계, 성과와 한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기 시범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중장기 모델 예시

- 개방형 K-Tiger 창작 아카이브·라이선싱 플랫폼 -

초기 파일럿: 큐레이션형 소규모 작품 컬렉션과 수동 이용 허락

중장기 확장: 전자계약·결제·정산·분쟁관리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전문·신진·아마추어 창작자가 호랑이 관련 미술·문학·디자인·공연·디지털 콘텐츠 작품을 등록하고, 시민·교육기관·박물관·출판사·기업·콘텐츠 제작자가 이를 검색하여 원작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범위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플랫폼은 누구나 작품과 작가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개방형 창작 아카이브와, 원작 판매·이미지 복제·전시·교육·변형·문화상품·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연결하는 권리관리형 라이선싱 마켓플레이스를 결합한다.

원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하며, 원작 판매가 복제·변형·상품화 권리의 자동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한다. 작품별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변형 허용 여부, 독점·비독점, 이용 매체·기간·지역과 보상방식을 명확히 표시하고, 표준계약과 투명한 정산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안정적인 활용을 함께 보장한다.

전통 원전, 기관 소장 이미지, 전통작품 재현, 전통도상을 활용한 창작, 현대 자유창작을 구분하여 출처와 권리상태를 표시한다. 작품 등록은 전문작가와 신진·아마추어에게 개방하되, 기본적인 권리·출처 심사와 전문가 큐레이션을 병행한다.

초기에는 제한된 작품을 대상으로 큐레이션형 시범 컬렉션과 수동 라이선싱을 운영하며, 이후 이용기록·전자계약·결제·정산·신고·분쟁조정과 유사 이미지 확인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열람과 참여는 개방하고, 이용과 변형은 명확한 권리조건에 따라 관리하며, 창작의 성과는 창작자와 문화적 기반에 공정하게 환류한다.

K-Tiger 시범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존 실행 경험과 현재 추진 기반

- 호랑이카페: 가족·시민 대상 소규모 문화·생태 체험공간의 운영 가능성
- 국제 공동연구: 호랑이·표범 생태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문화·교육으로 확장할 기반
-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어린이 창작-전시-가족 참여-국제교류가 연결되는 검증된 시민 프로그램
- 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 분야 간 공론과 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 기반 (추진 예정)



**한국범보전기금 「호랑이카페」에서
호랑이문화를 체험하는 가족들**
파일럿 의미: 소규모 공간에서
전시·놀이·이야기·생태교육을 결합하고 가족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호랑이문화 통합교육 시민참여」 파일럿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행 경험이다.



서울대학교와 한국범보전기금이 참여한 호랑이·표범 보전 국제 공동연구와 교육협력

파일럿 의미: 러시아 표범의땅국립공원과의 유전자 연구 및 방글라데시 법과학 교육협력은
과학적 연구, 해외 현장기관, 인재양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한 경험으로서,
「호랑이문화-생태보전 연계」 및 국제협력 파일럿의 기반을 보여준다. (위: 러시아
표범의땅국립공원과의 호랑이표범 유전자 연구, 아래: 방글라데시에서의 법과학
교육협력사업)



**2025년 제13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에서
호랑이 예술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어린이와 가족들**

파일럿 의미: 어린이 창작-공공 전시-가족 참여-국제교류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함으로써, 「호랑이문화 통합교육·시민참여」와 창작·국제교류 파일럿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선행 경험이다.

운영방침

참가비: 무료
문의: 호랑이문화포럼 사무국 02-888-2744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 신청순으로 참석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후원 및 협력

영진사이버대학교 ·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 가회민화박물관
한라친선협회 · 시베리아포럼 · 환경재단 · 배재정도가 · 에버랜드
한국동물환경연구소

오시는길

■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210호

영진사이버대학교의 상징동물: 백호

본 행사의 협력 기관인 영진사이버대학교는 백호를 상징동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문화속에서도 당당한 기백을 지닌 한국적 호랑이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초청장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호랑이문화포럼

TIGER CULTURE FORUM
문화의 연결 | 생태의 공존 | 미래의 함력

■ 일 시: 2026년 9월 18일(금) 13:00
■ 장 소: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의실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 로고에 담긴 뜻

호랑이문화포럼 로고는 한국 전통 민화의 호랑이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원형은 세계와의 소통과 화합을 의미하며, 호랑이는 용기와 지혜, 생태적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연결 · 생태의 공존 · 미래의 함력'이라는 포럼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이야기와 그림, 문화와 상상력 속에서 호랑이는 오랫동안 특별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설화와 민화 속의 호랑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호랑이, 문화와 동화와 애니메이션 속의 호랑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감동적인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와 생태, 교육과 국제 협력을 잇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호랑이문화포럼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은 호랑이를 단순한 옛 상징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야기 속 호랑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돌아보고, 미래 세대와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K-Tiger 문화플랫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행사에서는 호랑이문화포럼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기념식과 함께, 문학·스토리텔링·동화·애니메이션·구비전통 속 호랑이를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또한 2025년 제13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마련되어, 어린이들의 눈으로 그려낸 호랑이의 생생한 상상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문화포럼의 첫 행태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호랑이문화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호랑이문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신 윤열수 이기수 드림

행사개요

- 행사명: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
- 주 제: 이야기 속 호랑이, 과거를 소환하여 미래를 열다
- 일 시: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13:00~18:00
- 장 소: 영진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의실(약도 참조)
- 주 최: 호랑이문화포럼
- 주 관: 호랑이문화포럼 운영위원회 · 사단법인 한국범보전지금
- 병행 행사: 2025년 제13회 한-러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행사순서

13:00~14:00
등록 및 전시회 관람

14:00~15:00
개회 및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식, 포럼 출범식 이벤트, 공동대표 인사, 경과 및 사업계획 보고, 축하 인사, 기념촬영

15:00~16:00
심포지엄 세션: 왜 사람들은 여전히 호랑이를 이야기하는가
— 문화와 스토리텔링으로 본 호랑이문화

- 기조발제: 김중희 문학평론가
한국문학 · 세계문화사의 지평에서 본 호랑이문화
- 주제발표: 김주에 작가
민족사적 배경과 소설로 구현한 호랑이문화
- 주제발표: 조지은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한국 · 세계에서 동화 및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된 호랑이문화
- 주제발표: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호랑이문화의 국가유산적 가치

17:00~18:00
호랑이문화포럼 추진을 위한 원탁토론: 왜 지금 여기서 호랑이인가
— K-Tiger 문화플랫폼의 가능성과 방향
호랑이문화포럼 2026년 서울선언문 채택

18:00 이후
만찬 및 네트워킹

이런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 호랑이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 문학 · 민화 · 동화 · 애니메이션 ·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분
- 생태와 문화, 교육과 국제협력의 연결에 관심 있는 분
- 어린이 호랑이그리기대회와 호랑이문화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분
- 새롭게 출범하는 호랑이문화포럼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분

호랑이문화포럼 창립기념식 및 심포지엄 초청장
파일럿 의미: 문화·문학·예술·생태·교육·국제교류 분야의 지식과 기관을 연결하여 공동의제를 발굴함으로써, 「포럼·협력 네트워크와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파일럿의 출발모형을 보여준다.

초기 실행 프로그램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완성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참여기관과 재원의 여건에 따라 몇 개의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공동기획-실행-기록-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기관과 지역으로 확장한다.

각 파일럿은 하나의 행사가 끝난 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천자료·창작물·교육자료·협력관계·운영기준과 평가결과를 남겨 다음 사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

작은 실험이 축적되어 공동의 제도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K-Tiger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방법이다.

8. 기대 효과

호랑이문화포럼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흩어진 문화·예술·생태 자산과 다양한 참여 주체를 연결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환류하는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포럼의 기대효과는 호랑이 관련 콘텐츠나 행사의 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지 않다. 원천자료와 지식이 공공자산으로 축적되고, 전통문화와 현대 창작이 함께 성장하며, 시민의 문화경험이 교육·지역사회·국제교류와 실제 생태보전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1. 문화적 기반과 공공 지식자산의 강화

호랑이 관련 설화·민속·신앙·문학·미술·생활문화·생태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검증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와 출판·전시·교육자료로 축적함으로써 흩어진 문화자산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지식기반을 마련한다.

대학·연구기관·박물관·문화기관의 공동조사는 기존 자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미등록·미분류 자료와 지역의 구술·생활문화 자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뿐 아니라 교육자·창작자·시민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원천이 된다.

- 전통문화·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조사·연구·창작·전승 기반 강화
- 원천자료의 분류·해설·디지털화와 공공적 축적
- 대학·박물관·전승 공동체 간 공동연구 확대
- 미등록·지역자료의 발굴과 문화적 기억의 보존
- 연구성과의 전시·교육·출판·창작 원천으로의 확장

2. 창작과 문화산업의 동반성장

검증된 문화원천과 연구자의 해석, 전통예술가와 현대 창작자의 창의성, 기업의 제작·기술·투자·유통 역량을 연결함으로써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감수성을 함께 지닌 새로운 작품과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를 단순한 작품 공급자가 아니라 공동기획자이자 권리 주체로 존중하고, 출처 표시·저작권·이용 범위·변형·2차 활용·보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공정협업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다. 콘텐츠의 사회적·산업적 성과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가고, 일부 성과가 후속 연구·창작·교육·전승으로 이어지면 문화의 원천과 산업적 활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 신뢰도 높은 문화원천에 기반한 새로운 스토리·캐릭터·디자인·콘텐츠 발굴
- 전통예술가·연구자·현대 창작자·문화산업 간 공동기획 확대
- 창작자의 발표·유통·라이선싱 및 산업적 활용 기회 확장
- 창작자의 권리·기여·보상을 존중하는 공정한 협업기준 마련
- 문화산업 성과의 후속 연구·창작·교육·전승 기반으로의 환류
- 일회성 상품 개발을 넘어 지속적인 창작과 원천 공급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3. 통합교육과 시민문화의 확장

호랑이는 어린이와 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와 풍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어 생태와 생명, 전통과 문화, 정체성과 세대, 다양성과 공존을 함께 다루는 통합교육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설화·민화·문학·역사와 실제 호랑이의 생태를 전시·낭독·미술·놀이·탐방·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와 환경 의제를 감성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각자의 동물 이야기와 자연관을 나누는 프로그램은 문화 간 이해와 소속감, 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생물다양성·기후위기·생명존중·야생동물 공존 교육 확대
- 설화·민속·민화·문학·생활문화를 활용한 전통문화교육 활성화
- 어린이·청소년의 창작·표현·문화 참여 기회 확대
- 세대별 기억과 지역 이야기를 연결하는 문화전승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구성원의 이야기와 자연관을 존중하는 상호문화교육 확산
- 학교·가족·시민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교육자료·교구·다언어 콘텐츠 축적

4. 지역문화와 장소 기반 브랜드의 형성

지역에 흩어진 산·지명·설화·사찰·산신도·문학·미술·생태·생활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문화지도·탐방·전시·교육·공공미술·지역상품과 연결함으로써 장소에 뿌리내린 새로운 지역문화 경험을 만들 수 있다.

K-Tiger 지역협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호랑이 캐릭터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장소를 주민·연구자·예술가가 함께 해석하여 서로 다른 호랑이 이야기와 경험을 만드는 분산형 공동브랜드를 지향한다.

- 분산된 지역 문화·생태 자산의 조사와 이야기화
- 산·사찰·박물관·문학관·마을·시장 등의 연계 활용
- 지역 고유의 문화지도·탐방코스·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예술가·학교·주민·소상공인의 공동 참여 확대
- 가족형·교육형·체류형 문화관광 자원 확충
- 주민의 지역문화 이해와 자긍심, 장소에 대한 소속감 강화
- 문화·관광·교육·환경·도시디자인을 연결하는 융합행정 모델 형성

5. 문화적 관심의 실제 생태보전으로의 연결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자연 속 호랑이와 표범,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생태 연구성과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시·영상·교육자료로 전환하고, 문화행사와 창작 콘텐츠를 보전 캠페인·시민과학·후원·국제 공동연구와 연계함으로써 문화적 참여가 실제 보전 행동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 호랑이·표범과 최상위 포식자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이해 확대
- 과학적 연구성과의 전시·교육·콘텐츠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
-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서식지 보전 활동의 연계

- 생물다양성과 인간-야생동물 공존에 대한 공론 확대
- 사업의 성격과 사전 합의에 따른 연구·교육·현지보전으로의 성과 환류
- 문화와 생태를 통합하는 차별화된 환경 커뮤니케이션 모델 개발

6. 국제교류와 공공외교의 확대

호랑이는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러시아 극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보전해야 할 문화적·생태적 존재다. 따라서 각 지역의 고유한 호랑이문화와 생태지식을 존중하는 비교연구·전시·교육·출판·보전협력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국제교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치·외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문화와 학술, 생태보전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정치적이고 호혜적인 접점을 제공한다.

- 한국·동아시아·러시아 극동의 호랑이문화 비교연구 확대
- 국제 공동세미나·전시·출판·아카이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태 연구와 문화교류가 결합된 국제협력 모델 형성
- 다언어 자료와 콘텐츠를 통한 국제 시민 참여 확대
-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비정치적·호혜적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초국경 생태계와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장기 협력 기반 강화

7. 개방형 공공문화 협력체계의 구축

호랑이문화포럼의 중요한 기대효과는 개별 사업의 결과물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와 기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방식과 제도적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있다.

대학·박물관·창작자·교육기관·기업·지방자치단체·재단·지역사회가 공동기획에 참여하고, 역할·권리·보상·성과 활용을 사전에 협의하며,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평가하는 경험은 다른 문화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

- 분야와 기관의 경계를 넘는 공동기획·실행 역량 강화
- 자료 출처·저작권·창작자 보상·성과 활용에 관한 협력기준 축적
- 단독 기관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융합사업과 공동재원 발굴
- 연구·문화·교육·생태·산업 네트워크의 지속적 형성
- 파일럿의 기록과 평가를 통한 우수모델의 확산
- 단기 후원이나 행사 참여를 넘어서는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

참여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과 기대 가치는 제6장 「참여 구조와 상호가치 협력 방식」에 제시하였다.

기대효과와 확인 가능한 성과의 예시

기대효과 영역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중장기 변화
문화적 기반	조사·발굴 자료, 메타데이터, 시범 DB, 연구·해설 자료	공공 아카이브와 지속적 연구·전승 기반
창작·문화 산업	공동창작물, 공정협업 기준, 라이선싱 사례	창작자 권리·보상과 산업적 활용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교육·시민 문화	교육모듈, 교구, 참여자·창작물, 만족도·변화 평가	학교·지역·다문화사회로 확산되는 통합교육
지역문화	지역 문화지도, 탐방코스, 주민·창작자 참여	고유한 장소브랜드와 지속적 지역문화 프로그램
생태보전	연구성과 대중화 자료, 캠페인·시민 참여	문화적 관심의 장기적 보전협력과 행동으로의 전환
국제교류 협력체계	공동세미나·전시·번역자료·기관 협력 참여기관, 공동기획안, 계약·운영기준, 평가자료	지속적인 문화·생태 공공외교 네트워크 다기관·다년간 공동 플랫폼과 제도적 기반

종합적 기대효과

이러한 효과들은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한다.

자료와 연구의 축적

- 새로운 해석과 공정한 창작
- 전시·교육·콘텐츠·지역 경험의 확장
- 시민과 세계의 관심·참여 확대
- 후속 연구·창작·전승·지역문화·생태보전으로 환류

궁극적으로 호랑이문화포럼은 한국 사회에 축적된 호랑이문화와 그 문화적 뿌리를 오늘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새롭게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발전시키며, 문화와 자연·지역과 세계·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9. 향후 발전 방향

작은 실험의 축적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문화 기반으로

호랑이문화포럼은 일회성 행사나 개별 콘텐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문화와 문학·인문학·기초예술의 기반을 강화하며 이를 현대 창작·교육·시민문화·지역사회·생태보전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K-Tiger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호랑이문화포럼은 사람과 기관을 연결하여 공동의제와 사업을 만들어 가는 운영 네트워크이며, K-Tiger Culture 플랫폼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연구·아카이브·창작·전시·교육·콘텐츠·지역협력·시민 참여·국제교류의 통합적 기반이다.

따라서 포럼의 장기 발전은 처음부터 대규모 조직이나 시설을 설립하는 방식보다, 작지만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행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기록·평가하며, 검증된 모델을 정례화하고 다른 기관과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설보다 관계와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다.

단계적 발전 로드맵

다음 로드맵은 추진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는 참여기관·인력·재원 및 선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각 단계는 정해진 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과와 협력기반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확장한다.

발전 단계	시기 예시	핵심 목표	주요 과제와 확인할 성과
1단계: 기반 형성	2026~2027	공동의제와 운영기반 마련	포럼 출범, 서울선언문 논의·채택, 운영원칙, 협력기관 지도, 우선 파일럿 선정, 성과지표·권리·환류 기준 마련
2단계: 파일럿 실행·검증	2027~2028	문화생태계의 작동모델 검증	원천자료 아카이브, 공정협업랩, 통합교육, 지역 문화지도, 문화-생태보전 연계사업 실행·평가
3단계: 정례화·확장	2028~2030	검증된 모델의 제도화와 확산	정례포럼, 다년간 공동사업, 기관 간 DB 연계, 지역거점 확대, 국제 공동전시·교육, 창작 아카이브·라이선싱 플랫폼 발전
4단계: 플랫폼·거점화	장기	지속 가능한 통합기반 구축	안정적 운영조직과 자원, 전국·국제 네트워크, 통합 디지털 플랫폼, 상설 교육·전시·연구 프로그램, 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1단계: 기반 형성과 공동의제 확립 | 2026~2027

- 호랑이문화포럼 출범과 서울선언문 논의·채택
- 운영규정과 공동기획·의사결정 구조 마련
- 참여기관·전문가·자료·공간의 호랑이문화 생태계 지도 작성
- 우선 추진 파일럿 선정과 공동기획
- 자료 출처·저작권·창작자 보상·성과 환류 원칙 마련
- 사업 기록·성과평가 기준과 초기 실무운영체계 구축

주요 성과: 협력 네트워크, 공동의제, 파일럿 기획안, 기본 운영기준

2단계: 파일럿 실행과 협력모델 검증 | 2027~2028

- 대학·박물관 원천자료 아카이브
- 전통문화·기초예술·현대 콘텐츠 공정협업
- 호랑이문화 통합교육과 시민 참여
- 지역 문화지도·탐방 및 장소 기반 프로그램
- 문화-생태보전 연계사업
- 큐레이션형 창작 아카이브와 라이선싱 시범운영
- 사업별 결과·권리관계·참여자 변화·환류성과 평가

주요 성과: 시범 데이터베이스, 공동창작물, 교육모델, 지역 프로그램, 공정협업 기준, 평가보고서

3단계: 정례화·지역화·국제화 | 2028~2030

- 우수 파일럿의 정규·다년간 프로그램화
- 정례 국내외 포럼과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 기관 간 아카이브와 메타데이터 연계
- 지역별 K-Tiger 협력거점과 도시·지역 네트워크 구축
-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학교·지역사회 확산
- 국제 공동연구·전시·출판·교육·생태협력 정례화
- 창작 아카이브·라이선싱 플랫폼의 기능 확대
- 상설 실무조직과 복수 자원구조 마련

주요 성과: 다년간 공동사업, 지역·국제 네트워크, 연계 아카이브, 정례 교육·전시·교류 프로그램

4단계: 통합 플랫폼과 상설 거점 구축 | 장기

장기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기반을 상호 연결한다.

- 포럼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협력·운영 네트워크
- 연구·아카이브·교육·창작·라이선싱을 연결하는 디지털 공공플랫폼
- 대학·박물관·지역·생태기관의 분산형 협력거점
- 전시·교육·연구·창작·국제교류를 통합하는 상설 문화거점

상설 문화거점은 장기 운영재원, 소장·연구자료, 시민 수요, 협력기관과 입지조건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호랑이문화센터 또는 박물관(가칭)’ 형태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

포럼의 장기 발전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다음 조건이 함께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 사업의 결과와 과정을 공공문화 자산으로 기록·축적한다.
- 창작자와 자료 제공자의 권리·기여·보상을 존중한다.
- 기존 기관과 지역의 역량을 연결하는 분산형 협력체계를 우선한다.
-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후속사업에 반영한다.
- 공공·재단·기업·시민 참여 등 복수의 재원을 확보하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
- 문화적 관심과 성과가 연구·창작·교육·전승·지역문화·생태보전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포럼이 지향하는 것은 거대한 시설을 먼저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긍정적인 협력, 반복 가능한 교육과 창작 모델, 지속되는 관계를 먼저 축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이 충분히 성숙할 때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거점, 상설 문화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장기적 지향

호랑이문화포럼은 호랑이를 단순한 문화 소재나 상품 이미지로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축적된 호랑이문화와 그 문화적 뿌리를 오늘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새롭게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K-Tiger Culture 플랫폼은 문화와 자연, 전통적 기반과 현대적 창조, 지역과 세계, 창작자와 문화산업을 연결하며,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세계가 보다 깊고 감성적으로 경

험하게 하는 공공문화의 접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산신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케데헌 더피 호랑이

호랑이, 경계를 잇는 문화적 매개

산신도 속 호랑이는 산신을 보좌하며 인간의 세계와 산의 신성한 질서를 이어주는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오늘의 호랑이는 인간과 자연, 문화의 뿌리와 미래, 전통문화·기초예술과 현대 콘텐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열린 상징이 될 수 있다. 호랑이문화포럼은 이러한 매개자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 기관과 지역을 연결하고, 각 영역의 성과가 다시 연구·창작·교육·전승·지역문화와 생태보전의 기반으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K-Tiger는 단순한 동물 이미지나 콘텐츠 소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뿌리에서 미래의 이야기가 자라나고 한국이 세계와 만나는 하나의 살아 있는 문화적 언어이다.